

# 북한의 문학번역에서 의성어·의태어 활용양상 연구

발표자 이은정(중앙대)

1. 연구 목적
2. 관련 선행연구
3. 북한의 의성어·의태어 개념 및 분류
4. 북한의 의성어·의태어 관련 문학번역담론 및 번역 예시
5. 결론 및 제언

# 1. 연구 목적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수용되는 북한의 외국문학은 문학번역담론에서도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의성어·의태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특히 발달한 문화어로서, 상대적으로 해당 어휘가 덜 발달한 언어문화권으로 번역할 경우 그 어휘적 등가성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대체로 풀어쓰거나 다른 범주의 내용어로 대체하게 되며, 역으로 외국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는 첨가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 외국문학번역의 방법론에서 의성어·의태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들 어휘가 고유어이자 민족적 색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도에는 이들 어휘가 지닌 감각적 특성이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과 연결시키기 용이하며, 번역자가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임을 북한의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의 의성어·의태어 선행 연구 및 관련 번역텍스트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 2. 관련 선행 연구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진행된 의성어·의태어 연구는 주로 한국어가 원천언어가 되어 한국어에 내재한 의성어·의태어를 목표언어로 어떻게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주로 다루었다(노진서 2008; 김도훈 2014; 김순영·이선영 2015; 마승혜·김순영 2021).

노진서(2008)와 김도훈(2014)은 한영번역에서의 의성어·의태어 번역전략을 논하는 데 노진서는 풀어쓰기와 생략, 대체의 전략을 제시하고 김도훈은 감탄사나 동사 사용, 설명적 어구 사용을 제시한다. 김순영·이선영(2015)은 의성어·의태어를 문체론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마승혜·김순영(2021)은 기존 의성어·의태어 번역 연구가 문학을 중심으로 다룬 것과 달리 웹툰에서의 번역 전략을 다루었으며, 기계번역(MMT)에서 다의적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한계성을 짚어내었다. 영한번역에서는 주로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나연서 2016; 이근희 2009; 신지선 2005), 가화성(speakability)을 위한 장치로서 텍스트 독자가 아동인 점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지닌 리듬감과 청각적 효과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북한의 문학번역에서의 의성어·의태어 연구는 배대하(2015)가 백석이 북한에서 번역한 러시아 문학 『고요한 돈』을 국내 번역과 비교·분석하면서 의성어·의태어의 활용을 백석 고유의 번역 특징을 짚은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번역문학담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는 자국어가 목표언어가 되었을 때 의성어·의태어 활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국내 연구와 비교하여 그 양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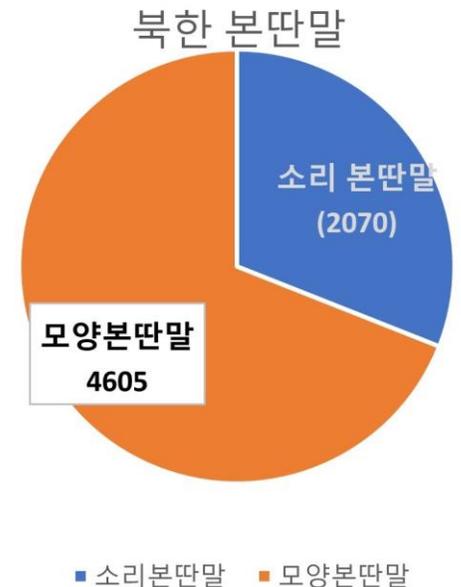
### 3. 북한의 의성어·의태어 개념 및 분류

- 의성어(onomatopoeia)와 의태어(mimetic words)는 한국어(남한)에서 '음성상징어', '흥내말' '시늉물' '상징어', '상징부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듯이(조창규, 2005, 김순영 2015:14 재인용), 북한에서도 '본딴말[소리본딴말, 모양본딴말]'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학자에 따라 '상징부사'나 '소리마디반복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본딴말: 소리나 모양, 움직임, 성질, 상태를 직접 본따서 만든 어휘로, 대상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의미색채를 가지게 한다.(최학 2017: 23)

1) 모양본딴말: 시각적 표상을 비롯한 미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상에 기초하여 상징적 의미 표현

2) 소리본딴말: 청각적 표상에 기초하여 상징적 의미 표현.  
있는 그대로 흥내 [직접소리 본딴말]  
상징적으로 흥내 [간접소리 본딴말]



### 3. 북한의 의성어·의태어 개념 및 분류

본딴말			
모양본딴말		소리본딴말	
사물의 성질/상태	폭신평신평, 등실등실, 날씬날씬...	상태[사람의 말소리]	소곤소곤, 웅성웅성
대상의 움직임 [사람/동물/자연]	살금살금, 비척비척, 어정어정, 슾적스�적, 부슬부슬, 펄럭펄럭...	대상의 움직임	저벅저벅, 쿵쿵
사람의 웃음(800)	벌쪽벌쪽, 씨물씨물, 방긋방긋, 히쪽...	사람의 웃음/울음	겅겅, 킨킨, 하하, 흑흑, 흐아흐아...
빛깔	불긋불긋, 반짝반짝	대상의 소리를 그대로 대상의 소리를 상징적으로	

[표1] 북한의 의성어·의태어[본딴말]분류 (오정식 2004; 최학 2017)

- 의성어의태어를 감각에 따라 분류 (김련화 1996)

“단어의 본질적인 특성은 명명성으로, 모든 단어들은 명명성을 가짐으로써 사물, 현상, 감정을 가리켜 표현한다. 그러나 본딴말은 논리적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감성적 인식을 직감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단어들”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듯이 표현하여 생동성을 확보한다.

다만, 미각과 후각, 촉각과 관련된 본딴말은 매우 적으며, 이는 감성적 형용사를 통해 보충

시각	오돌오돌, 싱글싱글, 발랑발랑 ....
청각	왁강쟁강, 부시락부시락, 탕탕 ...
후각	비릿비릿...
미각	달콤쌉살, 시금시금...
촉각	새큰새큰, 쿡쿡, 보들보들...

## ■ 북한에서 정의하는 의성어·의태어[본딴말]의 본질적 속성

- 1) 우리말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서 사물현상의 다양한 소리와 모양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딴말은 입말체적 특성을 갖는다.
- 2) 본딴말은 고유어로서, 민족의 고유한 심리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민족적 색채와 정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 3) 사물의 표상[이미지]를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단어의 의미가 추상화되지 않고 구체적이다.
- 4) 밝은모음과 어두운 모음, 순한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음의 교체를 통해 의미정서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묘사하며, 여러 대조되는 현상과 성질의 의미를 적중하게 그려냄으로써 문체론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5) 일정한 말뿌리의 반복을 통해 음악적인 은율을 조성, 동요나 동시를 비롯해 어떤 사상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오정식 2004; 윤재성 2004; 김성희 2012; 2013)

- **북한의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를 강조하는 이유**

- 1) 가장 함축된 표현으로 소리나 모양을 표현한다. (장황한 묘사에 비해)

- 2) 본딴 말은 직관성이 높다.

: 어린이는 정서에 예민하여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의지나 이성보다 감성적으로 반응하므로, 정서적 체험에 노출시켜야 한다.

- 3) 어린이는 변화무쌍한 행동성과 강한 운동감을 가진 과장되고 의인화된 이야기를 좋아하므로, 사상을 논리적으로 주입하기 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작품의 사상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본딴말은 동적인 양상을 살리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대상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는 듯이 생동하게 표현하여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김용일 2014: 26-28, 윤재성 2005)

- 국내연구에서는 아동문학번역에서 의성어·의태어가 텍스트 읽기에서 가화성과 청각적 즐거움을 위해 강조된 반면 북한에서는 정서적 반응에 민감한 아동에게 텍스트의 사상을 주입하기에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임이 담론을 통해 드러난다.

## 4. 북한의 의성어·의태어 관련 문학번역담론 및 번역 예시

- Garrigues(1995: 361-362)는 영어를 비롯해 서구 언어에서 의성어가 하위언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동일하게 주변부 혹은 하위주체의 언어 (marginal or second-class linguistic citizen)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학자 김성희(2011:46)는 영어는 사물현상의 특징을 개념어로 표현하고 우리말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언어별 특징에 정치적 관계를 적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민족어를 덜 발전한 언어로 두는 것을 인종차별적 사고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의 차별적 시각을 비판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 힘의 관계를 인식하고 저항의 수단으로 의성어·의태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일 수 있다.
- 영어의 본딴말은 520여개로 소리본딴말이 360개, 모양본딴말이 160개에 불과하다(주광남 2013:114). 조선어는 자연현상의 소리나 모양을 나타낼 때 동사는 고정하고 상징사를 변환시키는 반면에, **영어는 동사 자체를 변형하므로, 조영번역에서 의미의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본딴 말을 통해 영어의 동사 하나를 동사 + 부사의 형태로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김명수 2013: 117)

## 4.1. 문학번역담론에서 의성어·의태어 활용 강조 연구

- 1) 소설은 인간의 성격과 사건에 대한 묘사의 문학으로, 번역에서도 묘사의 섬세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섬세성은 형식적인 시각의 산물이 아니라 **관찰, 감각에 의하여 얻어지는 심리적산물**이다. 따라서 묘사에서는 해당 사물현상의 체취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도록 해야"하며, 소설창작과 동일하게 묘사의 섬세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데, 본딴말들은 실제 감각기관으로 느끼듯 생동한 이미지를 형성시켜준다(진경일 2008: 58).
- 2) 본딴말을 비롯한 묘사어에는 "민족적 정서와 향기가 짙어서" 우리말의 주체성과 우수성을 고수하고, 특히 본딴말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하여 다양한 언어생활에 널리 사용된다."(리태봉 2004)  
\* 소설창작의 경우 전체 문장의 16.9-34.2%에 의성어·의태어 포함.

(예) 봄바람이 가볍게 불어온다[직역] –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온다[문학번역]

- 3) 역자들이 문학작품번역에서 본딴말을 이룬는 말소리들의 음향학적 차이와 밝고 어두운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원작이 요구하는 표현을 더욱 생동하게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정서적으로 윤색할 수 있다(한룡덕 2013:46).

- 북한의 문학번역에서 의성어·의태어 활용의 목적은 간략하게 1) 텍스트 수용자가 쉽고 빠르게 텍스트내용을 이해해서 정서적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2) 문학에서 묘사하는 인물이나 상황을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게 돕는 데 있다. 이는 북한에서 문학이 미학적 탐구보다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경일(2008: 58)은 『외국문학번역』에서 소설을 묘사의 문학으로 정의하며, 소설번역도 창작소설처럼 묘사의 섬세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데, “본딤말들이 실지 감각기관으로 느끼듯 생동한 이미지를 형성”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묘사의 강조는 북한문학이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창작 또는 수용하기 때문으로 보이며(도해자 2019), 문학번역에서 번역의 단위를 문장 단위가 아닌 단락으로 규정함으로써, 번역자가 본딤말이나 형용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텍스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

“단락은 의미론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의 통일체로서 논리적 측면은 사상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며 정서적 측면은 해당단락의 내용을 감정정서적으로 물들이면서 미학적인 장식으로 그 사상을 강조하면서 심리적 효과를 조성한다.”(진경일 2008: 65)

## 4.2.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번역 사례

[예시1] Roger gave **a little chuckle**, **touched** Carol's hand **lightly** and with his jaunty step **strolled** away. The thought occurred to her that she might possibly never see him again.

(로저는 **시뭏** 웃더니 캐롤의 손을 **슬쩍** 건드리고는 가벼운 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멀어져갔다. 캐롤은 두번다시 그를 만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시뭏》은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없이 가볍게 한번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두운모음(높은 모음) [ɪ]를 리용하면 로저의 웃음을 《새뭏》과 《싱긋, 생긋, 상긋》등과 구별지으면서 원작에 묘사되어있는 대상자체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낼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밝지않은 웃음을 짓는, 리별을 앞두고 애써 밝은 웃음을 지으려 하는 로저의 심리세계가 자뭏 착잡함을 소리느낌을 통하여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슬쩍》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살짝》과 구별되는 소리느낌을 가지고 있다. 《어슬렁어슬렁》도 마찬가지로 설명할수 있다. 높은모음 [ɪ],[ɨ]가 들어있는 것으로 하여 비록 무사태평한듯이 가벼운 걸음으로 떠나가지만 속이 태키지않아 느리게 걸어가는 로저의 걸음걸이모양을 원작에서처럼 생동하게 구별지어 섬세하게 나타낼뿐아니라 표현에 짙은 정서적빛깔을 깔아 주어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심리를 방불히 그려볼수 있게 한다.”(한룡덕 2013: 46-47))

[예시 2]

[ST] The skin of his pink fat face hung down in loose folds like the dewlaps of a bulldog and his long white hair was indescribably dirty. He was almost barefoot, crawling with lice, and he was hungry, but his irascible spirit was unimpaired. (1936 p. 320)

[TT1: N.K.] 피동피동 살이 찌고 혈색 좋던 그 낮가죽도 불독의 목에 늘어진 군가죽처럼 탄력을 잃고 축 늘어져서 온통 주름살투성이가 되었고 길게 자란 백발도 말할수 없이 어지러웠다. 발은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몸에는 이가 우글우글하였으며 배가죽은 등에 가붙을 지경이었으나 가랑잎 같은 그 성미만은 조금도 죽지 않았다. (박시환 2000: 51)

[TT2: S.K.] 발그레하고 살찐 얼굴의 피부는 불독의 턱 밑에 늘어진 살처럼 겹겹으로 맥없이 축 늘어졌고, 길게 자란 백발은 말도 못할 정도로 더러웠다. 그는 거의 맨발이었고, 온몸에 이가 스멀거렸으며, 몹시 굶주렸지만 급한 성미는 달라진 데가 없었다. (안정효 2010: 중-519)

- 예시 1은 북한학자 한룡덕이 의성어·의태어의 활용 사례를 연구에서 제시하고 선택한 어휘를 설명한 것이며, 예시 2는 Mitchell의 *Gone With the Wind* 번역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고령의 남부 귀족이었던 헨리 삼촌이 남북전쟁에 참전이후 급격히 변한 모습을 변한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원천텍스트에서의 'fat face'에 '피둥피둥'이라는 의태어가, 'crawling the lice'에는 '우글우글'이라는 의태어를 첨가하여 인물의 전쟁 전후 이미지를 대비시킨다.
- 의성어·의태어는 개념적 의미 전달보다 감각적 표현 가치를 담고 있으며, 정보 전달보다는 말해지는 장면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수적 요소(채완 2003: 123)로서, "의태어의 범주에 확실히 속하지 않는 동사들을 번역하는데 의성어와 의태어를 첨가할 경우, 원문에서 없거나 약하게 표현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성격이 강화"(배대화 2015: 120)될 수 있다. 이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번역자의 판단과 개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서 북한에서 정서적 반응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의성어와 의태어 활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결에서 이해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 북한에서 문학번역에서 의성어·의태어의 활용은 선전매체로 기능하는 북한문학의 특성상 텍스트 수용자가 쉽고 빠르게 텍스트를 이해하여 정서적 반응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모음과 자음의 교차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성과 의성어·의태어로 묘사되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는 감정을 자극하고 그 진동 폭을 세분화시킨다. 번역 단위를 어휘나 문장 층위가 아닌 의미중심의 단락으로 규정한 것도 번역자가 텍스트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의성어·의태어 또한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연구는 북한의 문학번역담론 안에서의 의성어·의태어 활용을 주로 분석한 것으로서, 실제 번역에서 적용된 빈도 수와 그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문학번역 안에서 의성어·의태어의 활용은 같은 작품도 시대별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도훈. (2014).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번역학연구*, 15: 25-50.
- 김순영, 이선영.(2015). 문체표지(style markers)로서의 말줄임표와 의성어 · 의태어 번역. *번역학연구*,16(2),7-31.
- 노진서. (2008). 한-영 시 번역 텍스트에서 활용된 의성어·의태어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45-63.
- 도해자.(2019). 미국 소설에 대한 북한의 인식. *인문연구*,(86),89-114.
- 마승혜, 김순영. (2021). 웹툰 한영 번역양상 및 멀티모달 기계번역(MMT) 활용 가능성 모색 – 의성어/의태어를 중심으로 . *통번역학연구*, 25(4), 103-124.
- 배대화. (2015). 백석의 『고요한 돈』 번역 연구. *슬라브 연구*, 31(3), 91-128.
- 신지선.(2005).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번역학연구*,6(1),65-98.
- 미첼, 마거릿.(201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 안정효 역, 파주: 열린책들.
- 채완. (2002). 의성어 의태어의 텍스트별 특성. *국어국문학*, 132(), 121-151.
- Garrigues, S. L. (1995). Mimetic parallels in Korean and Japanese. *Studies in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Found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9(2), 359-398.
- Mitchell, M.(1936). Mitchell, M. (1936). *Gone With the Wind*. N.Y.: Macmillan

[북한자료]

- 김련화.(1996). 우리말 지식- 본딤말의 표현적 특성. 문화어학습, 1996(2).
- 김류철.(2003). 우리 말 상징부사의 생동하고 섬세한 표현력. 문화어학습, 2003(4).
- 김성희.(2012). 조선어 본딤말의 령역문제에 대하여. 조선어문, 2012(2), 38-40.
- 김성희.(2013). 조선어반복형본딤말 형태부구성의 류형에 대한 연구. 조선어문, 2013(2), 37-39.
- 김용일.(2014). 아동시에서 본딤말로 살리는 동심에 맞는 양상. 조선어문, 2014(2), 26-28.
- 리광일.(2017). 소리마디반복법의 문체론적기능. 조선어문, 2017(3), 28-30.
- 리태봉.(2004). 번역작품의 형상성과 우리 말의 묘사어. 문화어학습, 2004(4).
- 밋첼.(20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 박시환 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박설미.(2015). 조선어상징적어휘와 한문상징적어휘의 대비분석. 조선어문, 2015(2), 36-37.
- 오정식.(2004). 본딤말과 언어형상. 문화어학습, 2004(1).
- 윤재성.(2005). 불후의 고전적명작 동화, 이야기들에서 본딤말의 리용. 문화어학습, 2005(3).
- 정문석.(2004). 본딤말이 가장 풍부한 조선어. 조선어문, 2004(3), 48.
- 주광남.(2013). 조선어와 영어본딤말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 2013(4), 113-116.
- 최인숙.(2004). 영조번역에서 풍부한 우리 말 어휘를 적극 활용해쓰자. 문화어학습, 2004(1).
- 최학.(2017). 본딤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말의 우수한 표현적기능을 잘 살린 언어형상. 김형직사범대학학보(어문학), 2017(4), 17-26.
- 한룡덕.(2013). 영어문학작품번역에서 적중뜻같은말의 탐구리용(2). 조선어문, 2013(2), 45-48.